

##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청주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

김양선\*\* · 김경희\*\*\*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청주시에 소재한 30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25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한 번 이용하면 거의 매일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참여 모두가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교사지지가, 참여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학교에서의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가장 많이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서 사회적 지지 향상 및 아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사회적 지지, 참여, 임파워먼트

\*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전면적으로 수정·재구성한 것임.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부교수

## I. 서론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광혁, 2009). 빈곤한 가정생활이 지속되면 아동은 물질적인 자원 부족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고(구인회·박현선·정익중·김광석, 2009), 아동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아동이 겪는 빈곤은 경제적인 취약성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양육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김정은·서윤주, 2018). 빈곤가정 아동들은 낮은 자존감과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보고는(김미숙, 2006) 적절한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돌봄의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빈곤가정 아동을 돌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정원의 80%이상을 돌봄 취약아동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보건복지부, 2019),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돌봄과 함께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과 개입이 필요한 존재로 대상화하는(Walther, 2002) 측면에 치우쳐 있어, 아동의 권리와 주체성에 대한 강조는 부족한 실정이다.

빈곤 아동을 결핍의 대상자로서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 강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기 내부의 힘을 찾아 결과적으로 개인내적, 대인관계, 정치, 사회의 측면에서 변화할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스스로의 내적 힘을 기르고, 능력을 개발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관해서 극복해 나감을 의미한다(김희성, 2002). 그러므로 빈곤가정 아동에게 임파워먼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빈곤가정 아동이 겪게 되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사회환경적 어려움과 빈곤의 세대 전승이라는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에 보다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논의의 다양성만큼 연구의 수행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임파워먼트 관련 연구들은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효과성(유평수, 2008; 광금연, 2009; 광미정·김형모, 2013), 사회적 자본과 임파워먼트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남화성, 2016),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자기이해(서민지·이수희, 2016) 등이 수행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개인과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최윤석, 2014) 빈곤 아동에게도 중요한 개념이다.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와의 관계의 유의성(이혜경, 2007; 이장범, 2012), 사회적 지지와 빈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김민성·박신희, 2015). 또한 최윤석(2014)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임파워먼트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관련 임파워먼트 연구들은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이수천·박진희·조미애·최윤석, 2013)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정다운, 2016)를 검증하는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아동의 참여권리는 최근에야 조명되고 있고(이현숙, 2017)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자치적 참여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김윤나·정건희·최윤진, 2010, 윤동엽·문성호, 2010)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참여 수준이 어떠한지, 이것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라는 빈곤 아동에게 중요한 외적 요인과 함께, 아동의 자기 선택과 결정을 포함하는 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빈곤아동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방안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임파워먼트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에서는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이 돌봄 취약 아동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따라서 이용 아동 다수는 저소득 돌봄 취약 가정으로, 가정형태별 특성을 보면 양부모 가정이 67%,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 등이 33%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많은 취약계층에서는 부모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부모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자녀와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빈곤 가정의 부모들은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많다(이혜연·이용교·이향란, 2009). 아동은 발달 특성상 부모나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통제 능력의 결여, 회의적 성격, 적대감 등 복합적인 사회심리적 문제들을 야기한다(유효림, 2010).

그런데 그동안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개인의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과거의 성공경험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Arnold et al., 2007) 빈곤아동의 역량 증진, 즉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함께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김경희·박근혜·김성원, 2016). 이를 임파워먼트와 연결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서 Saleebey(1992)는 개인적 혹은 집합적 영역에서 우리 자신 내면의 힘을 찾는 개인의 통제력 측면을 강조하였다. Gutierrez(1995)는 임파워먼트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그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개인적, 대인적, 정치적인 힘을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김은영, 2002 재인용).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같은 학문 분야라고 해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이혜경, 2007), 보편적으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첫째,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는 데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확신, 자존감, 권리 소유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이혜경, 2007). 둘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필요한 자원 동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희성, 2002). 셋째,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의 인지된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참여 및 정치적 의식의 증진, 사회행동에 대한 기술증진 등의 습득을 통한 구조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단행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능력을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엄미선·전동일, 2006).

빈곤아동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먼트가 강화되면 위축, 불안, 우울, 공격성이 줄어들게 되고(이혜경, 2007), 스트레스 고위험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이상준·남영옥, 2008).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희정, 2016)도 수행되었다.

임파워먼트는 빈곤아동의 역량 증진, 즉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함께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 주는 것과 관련되고(김경희 외, 2016), 임파워먼트가 형성되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주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이혜경, 2007).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 정보의 제공과 물질적 원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의미한다(이혜경, 2007).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공해 주고, 통제 능력을 형성시켜 인간의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민미희·이순형·이옥경, 2005).

사회적 지지원과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각각의 지지원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나름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성·박신희, 2015).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면적인 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인생의 초기에는 부모를 통해, 이후에는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둘러싼 타인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게 된다(Davis, 2003).

인간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으므로 사회적 지지의 요소와 제공원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혜경, 2007).

가족지지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관심과 애정, 인정, 도움 등 가족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은 가장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를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여러 가족원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 도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지지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혜경, 2007).

친구지지는 또래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정서적 만족감,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 자원을 포함한다. 어려서부터 아동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비슷한 문제와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적응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친구 관계는 부모 형제와 같은 1차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관계와 다른 2차적 사회적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친구는 가족과는 다른 사회적 자원으로 대인관계의 시발점이 된다.

교사지지는 학교생활에서 교사들로부터 얻는 지식이나 정보, 관심, 칭찬, 자신감, 학습 성취감 등의 자원을 포함한다. 교사는 아동에게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는 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성인으로서,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사회관 등을 형성하게 된다(홍복희, 2001).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복지사와 보내므로 교육, 보호, 프로그램 지도를 해주는 생활복지사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상담, 안전지

도, 위생지도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할 역할을 하는 생활복지사로부터 학교 교사와는 다른 지지를 제공받고, 정서적으로 강하게 밀착되어 아동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지 중 특히, 친구 지지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이해경(2007), 이장범(2012)의 연구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빈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로, 김민성과 박신희(2015)의 연구가 있다. 김수정(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빈곤가정 중·고등 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간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전종미, 2011; 장용희, 2018).

###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참여

참여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Wringe, 1981)로서 한 개인의 삶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참여의 개념에는 참여자의 주체적 권리와 평등이 내포되어 있다.

참여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의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차원을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 의미의 참여를 말한다(홍승애, 2003). 이런 의미의 참여는 어떤 TV프로그램을 시청할지, 몇 시에 잠을 잘지, 어떤 옷을 입을지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결정에서부터 모임의 결정, 학교 교육과정 참여 결정, 투표에 관한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Franklin, 1999). 참여의 의미를 자율적 삶의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자율적 삶의 차원에서 참여권은 실정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황성기, 1997). 이처럼 참여의 핵심적 의미는 참여 주체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라 볼 수 있다(김한진, 200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에서 특히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아동보호정책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한

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아동의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참여권 영역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환경 등 6개 영역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14곳의 아동 1만74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지방정부 69곳의 아동 2만19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참여와 시민권 영역에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동네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프랑스 아동 응답자의 60%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한국 아동 응답자는 6%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이현숙, 2017).

참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신희정(2016)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 역량 관계에서 참여가 매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고, 권선희(2017)는 브라질의 교육학자 Paulo Freire의 임파워먼트 교육 전략을 바탕으로 학급회의 절차를 구성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이것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와 임파워먼트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이수연·김형모, 2013; 김지윤·강현아, 2019)를 통해 볼 때, 아동의 참여는 아동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외부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함께 내적 결정 요인인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구성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학습하는 의미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홍승애, 2010).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동 참여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므로(송채경화, 2015) 본 연구를 통해 참여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과 중학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자기기입 설문지를 이해하고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재학생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주 소재 지역 아동센터 30곳을 확인한 후,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대부분 연구자의 직접방문을 통해 설문지의 응답율과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2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하고 총 22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로서 이해경(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해경(2007)은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정치·사회 임파워먼트의 세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사용한 김희성(2002)의 척도 중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두 영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도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영역 문항이 “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많은 선거는 내가 신경을 쓸 만큼 중요하지 않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응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해경(2007)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개인내적 임파워먼트는 Bolton과 Brookings(1998)가 개발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척도(intrapersonal empowerment scale)를 김희성(2002)이 청소년 측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변안 수정한 것으로서, 개인적 능력, 집단 의식, 자기결정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개 문항이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내적으로 임파워먼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희성(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84, 이해경(2007)의 연구에서는 .83,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안범희(1985)가 개발한 척도로서 원래 지각관계, 표현·정서관계, 역할관계, 자율·통제관계의 4가지 하위영역의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김희성(2002)이 문항 변별도 분석을 통해 27개 문항으로 단축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 임파워먼트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김희성(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 )는 .90, 이해경(2007)의 연구에서는 .93,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로서 이해경(2007)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생활복지사 지지의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해경(2007)은 가족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영역은 한미현(1996)이 개발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생활복지사(공부방 교사)지지 영역은 박지원(1985)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친구 지지 8문항, 가족 지지 8문항, 교사 지지 8문항, 생활복지사 지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5점 척도로서 총점은 33~16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이해경(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가족 지지 .89, 친구 지지 .87, 교사 지지 .83, 생활복지사 지지가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 .91, 친구 지지 .92, 교사 지지 .88, 생활복지사 지지 .96으로 나타났다.

## 3) 참여

아동의 참여 측정도구는 홍승애(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 측정도구는 가정에서의 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사회에서의 참여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홍승애(2003)의 척도에서 가정에서의 참여 영역은 김한진(2002)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것이고, 학교 및 사회에서의 참여 영역은 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의 분류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참여'는 자아영역, 가정사 영역, 가정 활동 영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교에서 참여'는 교과영역, 교과 외 영역, 학급운영, 학교운영 총 16문항, '사회에서의 참여'는 또래 활동, 단체 활동, 지역사회 활동에 해당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총 4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승애(2003)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가정에서의 참여는 .78, 학교에서의 참여는 .79, 사회에서의 참여는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가정에서의 참여는 .87, 학교에서의 참여는 .88, 사회에서의 참여 척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연구목적에 적합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호작업(coding)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참여권 행사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개인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25명의 개인적 특성을 성별, 학년, 성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자 아동 127명(56.4%), 남자 아동 98명(43.6%)으로 여자 아동이 약간 더 많았다. 학년 중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 75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응답자가 86.2%로 중학생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성적은 '중간이다'로 인식하는 경우가 146명(64.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개인적 특성

(N=225)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98	43.6
	여	127	56.4
학년	4학년	75	33.3
	5학년	66	29.3
	6학년	53	23.6
	중학교1학년	18	8.0
	중학교2학년	11	4.9
	중학교3학년	2	0.9
성적	잘하는 편이다	38	16.9
	중간이다	146	64.9
	못한다	41	18.2
계			100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함께 산다’가 144명(64.0%)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와 산다’가 30명(13.3%), ‘아버지와 산다’가 24명(10.7%),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산다’가 27명(12.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건복지부(2019)의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자료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이 72,286명(67.1%)으로 가장 많고, 모자가정 아동이 18,343명(17.0%), 부자가정 아동이 12,783명(11.9%) 순으로 조사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로 인식한 경우가 127명(56.4%)으로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144명(64.3%)으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104명(4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 또한 40대가 120명(53.3%)으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112명(4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N=225)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족형태	부모	144	64.0
	어머니	30	13.3
	아버지	24	10.7
	조손	27	12.0
경제적 수준	잘사는 편이다	74	32.9
	보통이다	127	56.4
	조금 못하는 편이다	24	10.7
부 연령	30대이하	47	20.8
	40대	144	64
	50대이상	33	14.8
	무응답	1	0.4
부_학력	중졸이하	10	4.4
	고졸	104	46.2
	대졸	52	23.1
	대학원이상	17	7.6
	무응답	42	18.7
모 연령	30대이하	91	40.5
	40대	120	53.3
	50대이상	12	5.3
	무응답	2	0.9
모_학력	중졸이하	8	3.5
	고졸	112	49.8
	대졸	48	21.3
	대학원이상	20	8.9
	무응답	37	16.5

3) 지역아동센터 이용 특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이용 특성은 <표 3>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이용한다’가 115명(51.1%)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은 ‘3년 이상’이 108명(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매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아동센터 이용 특성

(N=225)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용빈도	일주일에 한번	4	1.8
	일주일에 2번~3번	18	8.0
	일주일에 4~5번	88	39.1
	매일	115	51.1
이용기간	6개월 미만	18	8.0
	6개월~ 1년	35	15.6
	1년~ 2년	30	13.3
	2년~ 3년	34	15.1
	3년 이상	108	48.0

2. 주요 변인의 특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 참여권, 임파워먼트 수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1에 가까울수록 낮음)로 가족 지지가 평균 4.00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복지사 지지 3.69, 친구지지 3.56, 교사지지 3.40으로 나타났다.

참여는 4점 척도(1에 가까울수록 낮음)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참여함을 의미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에서의 참여는 평균 2.87로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의 참여가 2.85, 사회에서의 참여가 2.53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4점 척도(1에 가까울수록 낮음)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평균 2.90, 개인내적 임파워먼트가 평균 2.25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N=225)

		변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3.56	0.88
		가족지지	4.00	0.87
		교사지지	3.40	0.82
		생활복지사지지	3.69	0.91
종속변수	참여	가정 참여	2.85	0.52
		학교 참여	2.87	0.51
		사회 참여	2.53	0.59
	임파워먼트	개인내적	2.25	0.39
대인관계		2.90	0.46	

### 3. 변수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연구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를 <표 5>를 통해 제시하였다.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항 목	1	2	3	4	5	6	7	8	9
친구 지지	1.00								
가족 지지	0.52***	1.00							
교사 지지	0.53***	0.43***	1.00						
생활복지사 지지	0.48***	0.40***	0.53***	1.00					
가정 참여	0.47***	0.51***	0.47***	0.38***	1.00				
학교 참여	0.46***	0.37***	0.56***	0.38***	0.65***	1.00			
사회 참여	0.36***	0.32***	0.44***	0.33***	0.56***	0.64***	1.00		
개인내적 임파워먼트	0.47***	0.48***	0.56***	0.41***	0.52***	0.56***	0.53***	1.00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0.53***	0.53***	0.54***	0.46***	0.68***	0.69***	0.57***	0.69***	1.00

### 3.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이용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참여권 행사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VIF 값은 1.470~2.108이고 허용치는 모두 .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최종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약67.2%였다( $F=33.765, p<.000$ ).

1단계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투입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 및 참여권 행



사 변인을 투입하기 전 모형의 기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로, 성적( $\beta=.228$ ,  $t=3.304$ ), 이용기간( $\beta=.167$ ,  $t=2.535$ )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동이 인식하는 성적 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기간이 임파워먼트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2단계로 사회적 지지 변인, 즉 친구 지지, 가족 지지, 교사 지지, 생활복지사 지지를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0.5%로서, 설명력이 42.1%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교사 지지( $\beta=.296$ ,  $t=4.627$ ), 가족 지지( $\beta=.243$ ,  $t=4.113$ ), 친구 지지( $\beta=.199$ ,  $t=3.128$ ), 생활복지사 지지( $\beta=.135$ ,  $t=2.262$ ) 순으로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로 구성된 응답자들에게 학교 교사의 지지가 이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단계로 참여 변인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67.2%로서, 설명력이 16.3%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학교에서의 참여( $\beta=.261$ ,  $t=4.383$ ), 가정에서의 참여( $\beta=.191$ ,  $t=3.347$ ), 사회에서의 참여( $\beta=.168$ ,  $t=3.184$ ) 순으로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인 학교에서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 촉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이용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모델1				모델2				모델3			
	B	표준 오차	$\beta$	t	B	표준 오차	$\beta$	t	B	표준 오차	$\beta$	t
(상수)	2.247	.181		12.439***	1.199	.153		7.821***	.562	.140		4.004***
성별	-.049	.050	-.063	-.969	.013	.038	.017	.347	.055	.031	.070	1.757
학력	.048	.077	.043	.629	.002	.058	.002	.030	.000	.048	.000	-.005
성적	.148	.045	.228	3.304**	.088	.033	.135	2.651**	.111	.027	.171	4.095***
가족형태	-.046	.053	-.058	-.874	-.009	.039	-.011	-.222	-.038	.032	-.047	-1.171
친구수	.034	.019	.113	1.720	-.010	.015	-.035	-.701	-.007	.012	-.024	-.580
이용빈도	-.008	.036	-.015	-.228	-.026	.027	-.047	-.967	-.012	.022	-.021	-.531
이용기간	.046	.018	.167	2.535*	.020	.014	.072	1.437	.028	.011	.100	2.453*
친구지지					.087	.028	.199	3.128**	.045	.023	.102	1.936
가족지지					.108	.026	.243	4.113***	.060	.023	.135	2.649**
교사지지					.140	.030	.296	4.627***	.046	.026	.098	1.749
생활복지사지지					.058	.026	.135	2.262*	.042	.021	.098	2.008*
가정참여									.143	.043	.191	3.347**
학교참여									.198	.045	.261	4.383***
사회참여									.111	.035	.168	3.184**
통계량	$R^2=.109$ , $adj.R^2=.080$ , $F=3.784$ , $p=.000$				$R^2=.530$ , $adj.R^2=.505$ , change=.421*** $F=21.815$ , $p=.000$				$R^2=.692$ , $adj.R^2=.672$ , change=.163*** $F=33.765$ , $p=.000$			

※더미변수 - 성별:남=1, 학력:초졸=1, 가족형태:부모=1

※종속변수 - 임파워먼트(전체)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참여가 어떠한지, 또 사회적 지

지와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실천 현장에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청주 소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25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 아동이 127명(56.4%), 남자 아동이 98명(43.6%)으로 여자 아동이 약간 더 많았고, 학년은 4학년이 75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은 ‘중간이다’로 인식한 아동이 146명(64.9%)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함께 산다’가 144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다’로 인식한 아동이 127명(56.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대는 40대,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다. 이용 빈도는 ‘매일 이용한다’가 115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 기간은 ‘3년 이상’이 108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특성을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매일, 장기간 이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참여를 투입한 최종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빈곤가족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은영,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자치활동, 운영위원회 활동과 같은 참여활동이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성호와 윤동엽(2010), 권선희(201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독립 변수 중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 중 교사 지지( $\beta=.296, t=4.627$ ), 가족 지지( $\beta=.243, t=4.113$ ), 친구 지지( $\beta=.199, t=3.128$ ), 생활복지사 지지( $\beta=.135, t=2.262$ ) 순으로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연령대에서 특히 교사의 지지가 아동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구 지지, 가족 지지만이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한 이해경(2017)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며, 아동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가족과 친구, 학교교사, 지역아동센터의 교사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정다운, 2016; 김영란, 2006; 김희성, 2002)과 일치한다. 단, 상대적으로 생활복지사 지지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독립 변수 중 참여권 행사를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참여( $\beta=.261, t=4.383$ ), 가정에서의 참여( $\beta=.191, t=3.347$ ), 사회에서의 참여( $\beta=.168, t=3.184$ ) 순으로 아동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학교생활에서의 참여가 임파워먼트를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서 학교생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아동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관련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다수는 거의 매일, 수년 이상 이용을 지속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이 장시간을 보내는 주요 공간임을 재확인한 결과로서, 추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관점을 갖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용 기간과 임파워먼트와의 유의성이 나타난 것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아동센터 교사, 친구들과 오랜 기간 친밀감이 형성되고, 아동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해 주는 등 아동의 심리·정서적 보호를 통해 아동은 자아에 대한 긍정성을 찾고 내적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장기간 이용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주요한 타자로부터 오랫동안 지지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임파워먼트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아동이 장시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적 특성을 개선하고,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학교생활 참여, 숙제 및 학업 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동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하여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참여 변수 모두에서 가정, 지역아동센터 보다도 학교에서의 지지와 참여가 아동의 임파워먼트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지, 아동의 참여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교사 및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에서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가족이 미처 제공하지 못한 돌봄을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제공해 주는 것은 가족 내의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해결해 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가족 지지는 아동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로, 가족과의 연계와 교육 및 상담적 접근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부모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 뿐 아니라 가족 중심의 참여형 임파워먼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내외부에서 아동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윤동엽과 문성호(2010), 권선희(201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동 자치운영위원회 등의 구성과 토의 문화 축진은 아동의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기존의 돌봄 중심 실천에서 더 나아가 아동이 시민의식으로서의 권리와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활동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센터 내의 아동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센터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체험·문화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과 활발하게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는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좋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잦은 이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의 질 저하와 잦은 교체는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지지체계 형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별로 편차가 큰 돌봄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및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복지사들에게 참여권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 인식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아동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여러 사회복지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청주지역의 지역아동센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참여권 행사가 임파워먼트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밝혀냈지만

분석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그 경로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표집 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대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아동의 참여와 임파워먼트의 맥락과 구조를 보다 생생하게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곽금연. 2009.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인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미정 · 김형모. 2013. “청소년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청소년학 연구』 20(1): 129-156.
- 구인희 · 박현선 · 정익중 · 김광석.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권선희. 2017. “Paulo Freire 전략 기반의 학급회의가 초등학생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 박근혜 · 김성원. 2016. “빈곤가정 아동의 꿈과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 연구』 10(3): 183-210.
- 김경희 · 윤민화. 2018. “사회복지사가 바라본 빈곤아동의 좋은 성장”. 『학교사회복지학』 44: 319-344.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27-46.
- 김민성 · 박신희. 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지의 상대적 영향력과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2): 55-82.
- 김수현 · 이현주 · 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파주: 한울
- 김윤나 · 정건희 · 최윤진. 2010. “청소년자치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 연구』 12(3): 1-23.
- 김은영. 2002. “사회적 지지가 빈곤가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 서윤주. 2018. “빈곤가정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회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응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가정과 비교를 심으로”. 『열린 부모교육연구』 10(2): 61-78.
- 김지윤 · 강현아. 2019.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와 시민의식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학』 47: 99-127.
- 김한진. 2002. “가정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성. 200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91-113.

- 김희성. 2004.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135-157.
- 김희정. 2017. “한국 아동의 빈곤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의 영향요 인과 아동의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화성. 2016. “청소년 임파워먼트 인식 척도 개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호. 2006. “청소년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임파워먼트 접근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3(2): 47-67.
- 민미희 · 이순형 · 이옥경. 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에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박영미 · 김경이 · 조은주 · 이지현 · 우경미. 2017.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1): 34-43.
- 박지선. 200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서민지 · 이수희. 2016.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이해’ 단원의 교육 내용 선정 및 구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21-43.
- 신희정.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역량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 시설환경학회』 14(4): 71-81.
- 송채경화. 2015. 5. 4. “국가정책 속 어린이는 나라의 찬밥”. 한겨레. 특집일반. 1060호.
- 안법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미선 · 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유평수.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5(7): 1-21.
- 유효림. 2010.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운동엽 · 문성호. 2010. “청소년 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7(1): 101-123.



- 이상준 · 남영옥. 2008.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정신건강”.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 30: 136-161.
- 이소영. 2009. “저소득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관한연구: 서울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 김형모. 2013.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44: 189-211.
- 이수천 · 박진희 · 조미애 · 최윤석. 2013. “아동의 임파워먼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학』 25:83-107.
- 이현숙. 2017. “한국 아동권리 현주소는? 참여권은 잘 몰라요”. 2017. 2. 10. 한겨레 사회일 반 커버스토리.
- 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 사회적 적응”. 숙명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연 · 이용교 · 이향란. 2009.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 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용희. 2018. “내적 발달자산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 령성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 과교육연구』 18(11): 203-221.
- 정건희 · 김윤나 · 최윤진. 2010. “청소년 자치활동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 53-83.
- 정다운.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2017. “빈곤의 세대 간 이전: 부모의 빈곤지위가 자녀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익중 · 김미숙 · 임정기 · 김정화. 2017.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최윤석, 2014. “다문화가정 아동의 임파워먼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연구』 9: 7-35.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함수진. 1998. “임파워먼트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복희. 2001.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승애. 2003. “아동의 참여권행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애. 2010. “아동의 참여권행사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8: 59-82.
- 황성기. 1997.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 문제: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아동과 권리』 1(2): 65-82.
- Arnold, E. M., Walsh, A. K., Oldham, M. S., & Rapp, C. A. 2007. “Strength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with High-Risk Youth.” *Families in Society* 88(1): 86-94.
- Bolton, B., & Brookings, J. 1998.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43(2): 3-21.
- Davis, H. A. (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 (4): 207-234.
- Franklin, B., 1999. “Childrens Rights and Media Wrongs: Changing perceptions of Childrens Rights at the Turn of the Millenium” *Korean Youth Research*, 1(30); 5-20.
- Guitierrez, L., GlenMaye, L. & DeLois 1995. “The organizational context of empowerment practice :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administration”, *Social Work*, 40(2): 249–258.
- Saleebey, D. 1992. *The strength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NY: Longman.
- Walther, A., Hejl, G. M., Jensen, T. B., & Hayes, A. (2002). *Youth Transitions, Youth Policy and Participation: State of the Art Report*. Tübingen: IRIS e.V.
- Werner, E., & Smith, R.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Y: McGraw-Hill.
- Wringe C. A, 1981. *Children’s right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Abstract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on Children's Empowerment

- Focused on Children Using Cheongju Community Child Care Center -

Kim, Yang Sun\* · Kim, Ky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experiences of social support and those of wielding participation on empowerment feeling in children, specifically in those who are using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225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attending 30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in Cheongju-city.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ences of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had significant beneficial effect on the children's empowerment level. In detailed sub-category analysis, teachers' support and the exercise of participation in school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influence on empower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empowerment level of the poor children in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 it seems necessary to actively provide so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ield participation in various settings. In conclusion, we suggested several specific social welfare practices for achieving this purpose.

Keywords: community child care center, children, social support, participation, empowerment

[논문투고일: 2019.09.30, 심사일: 2019.11.01, 심사완료일: 2019.11.13]

---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ublic Administration.

\*\* Kkotdongne University, Social Welfare Counseling and Psychology, Associate professor.